



2018년 4월 24일, 용산 백범기념관 대연회장

佛敎正法을 수호하며 세계속에 불교의 위상과 정법포교를 위한

불교 최고의 고승 및 지도자들이 초발심으로 재발심하는 자정의례 대법회

(인간방생과 중생구제에 헌신하고자 다짐하는 한국불교 400여 종단 동참)

집전 : 자광스님 / 사회 : 백련스님, 봉암법사 / 합창단 : BBS 가릉빈가 합창단

정법수호연대와 대한불교대종사, 종사연합회가 주관하고 세계불교법왕청과 국제불교지도자연합회가 주최하는 '불교 고승 및 최고지도자들이 초발심으로 재발심하는 자정의례 대법회'가 24일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봉행됐다. 도성 스님(태종사 조실), 금산 스님(범종단최고원로회의장), 목탁 스님(세계불교법왕청 비서실장 대승정), 뚜라땃우마웅 미얀마대사를 비롯하여 한국불교 각 종단 최고지도자 80여 명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동참한 이날 행사는 1부 정법수호 대법회와 2부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정법수호연대는 2017년 11월경 세계불교법왕청 소속 혜정 스님과 법운 스님의 발족 제안을 시작으로 '세계불교도 정법수호연대'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어 이번 자정의례 대법회로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정법수호연대는 출재가자를 막론하고 정법을 의지해 지켜나가자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법을 지키는 것이 불교도의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취지로 '세계불교도 정법수호연대'의 구성이 그 출발점이 된다는 합의 하에 이 자정의례 대법회를 봉행하게 된 것이다. 자정의례 대법회는 BBS 가릉빈가 합창단의 축가를 시작으로 정법수호연대 김재은 이사의 경과보고, 봉행위원장 혜정 스님의 봉행사, 대회장 인경(천불사) 스님의 대회사, 총재 목탁 스님의 내빈 소개에 이어 뚜라땃우마웅 미얀마대사의 축사와 도성 스님과 금산 스님의 격려 법어, 목탁 스님의 총재 법어, 운영위원장 법운 스님의 '승가에게 고하는 글'로 마무리 되었다. 2부 행사에 앞서 한국불교지도자협의회 소속 국제붓다평화봉사단의 장학금 전달행사도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주호영 정각회장 등 각 정당 정치지도자들의 참석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긴박한 현안 정세에 따라 지면 축사로 대신했다.

정법을 지키는 것이 불교도의 우선 과제
자정의례 대법회가 그 출발점

명예총재 도성 스님 격려 법어



바르게 산다는 것은 생로병사의 바른길을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주인이 되어 바른 마음으로 사는 것이 답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이 고요하게 조금씩 덜어가며 삽시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며 실천하는 것이 우리 불제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정법수호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명예총재 금산 스님 격려 법어



불종자, 불제자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이웃 모두의 말들이 곧 부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심하는 사람 곧 시님입니다. 스승님에서 나온 스님이 아니라 시님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심하여 계를 의지하여 정법수호의 연대에 함께합시다. 바른 법과 바른 의례로 수행자의 본분을 다합시다. 우리가 오늘 모인 그 의미를 잊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 갑시다.

총재 목탁 스님 인사말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고 좋은 나무라야 아름다운 조각을 할 수 있습니다.

소승은 인간방생 중생구제의 원력으로 참회 정진의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불제자들이 화합을 저버리고 나누어 반목하는 현실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각자의 기득권을 버리고 새롭게 정신 개혁하는 마음으로 권리보다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큰 뜻을 추구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후대의 평가를 무서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국불교 지도자분들께서 모든 명예와 자만과 아상을 모두 버려야만 가능한 일이며 이것이 진정한 하나됨이요 곧 자비가 가득한 부처님 세상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제2의 10대 제자, 보살마하살, 성자, 아라한이 되시고 팔부신중이 되어 주시어 마음을 모아야 가능할 것이라 생각 합니다. 함께 해주신 한분 한분 모두 저의 가슴에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행사
봉행위원장 혜정 스님

한국불교 최고 지도자들이 종단을 초월하여 대의를 위해 서로 협조하여 세계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정법을 수호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목표입니다. 자정의례 대법회를 봉행하는 이 시간부터 그 어느 누구도 불교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세계불교법왕청 전 종도들이 앞장서서 중생과 더불어 민족불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불교운동의 선구자적 전통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일치단결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부대중 모두 용맹정진에 전념하여 호국불교가 대한민국을 지켜왔듯이 이제 우리 스스로 정법수호를 통해 불교도들의 단결된 의지를 바탕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불국정토를 이룩해 나갑시다.

대회사
대회장 인경 스님

불교최고 지도자들의 야단법석을 통해 세계도 하나, 인류도 하나, 종교도 하나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역사의 산실이요 웅비의 장소인 바로 이곳 백범기념관에서 불교지도자 여러분의 상견례와 함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한국 대종사 종사님들의 협의체를 구성하게 된것은 신선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이제 400여 종단의 지도자 여러분의 총지를 모을 때가 되었습니다. 모두의 원력을 모아 정법수호 협의체를 잘 이끌어 나갑시다. 이를 통해 세계종교의 근원이 하나인 것을 밝히고 갈등과 분열, 대립을 치유하고 세계평화와 복지증진을 위해 기부와 봉사문화에 다함께 동참합시다.

축사
미얀마대사 뚜라왓우마웅

저와 주한미얀마대사관에서 양국 관계에 힘을 쓰고 있는 것처럼 미얀마친선교류협의회 목탁스님께서도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항상 감사의 마음을 새기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가깝고 서로 돕는 우애를 나누기를 기원합니다. 인류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며 좋은 인연,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 오신 한국의 종교 지도자 여러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존경합니다. 저와 미얀마대사관도 한국과 미얀마의 우호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법수호연대 발족 제안문

(1) 어지러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정법을 수호하려는 불교계의 출가와 재가의 모임들을 결집하여 '정법수호연대'을 발족하고자 제안합니다.
(2) '정법수호연대'는 수행과 교육 중심의 포교활동에 매진할 것이며 아울러서 사방승가의 통합적 이념을 구현하려는 세계불교법왕청의 주요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 '정법수호연대'는 출가자 단체로서 '원로승가회' '대중승가회' '국제교류승가회'를 결집하여 통합단체로서 출범하고자 합니다.
(4) '정법수호연대'는 세계불교법왕청의 사방승가의 통합적 이념에 공감하며 이의 실현을 위한 주요 활동으로서 '법왕 추대' '법왕청 설립 유지' '법왕궁 불사' 등의 실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5) 정법수호연대'는 '정법에 근거한 교육 수행 프로그램 연구 개발' '정법에 근거한 법요집 및 교재 발간' '정법에 근거한 수행모임과 수행공간의 확대' 등의 고유 활동을 통하여 흐트러진 정법의 체계를 다시 결집하고 이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목적을 둡니다.
이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세계불교법왕청을 중심으로 사방승가의 결집과 통합을 이루고자 합니다.

한국불교지도자협의회 소속 국제붓다평화봉사단 (총재 목탁, 회장 이정희)의 장학금 전달

이번 장학금 수여는 국제붓다평화봉사단의 주요 사업의 하나로 한국불교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계속되어 온 행사로 이번 수여는 일면 스님(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과 생명나눔실천본부 최상균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선정된 의정부 광동고등학교 학생4명(안진영, 김기현 장민석, 윤준호 학생), 남양주 광동고등학교 1명(박수정 학생), 양주고등학교 1명(김은서 학생), 동국대부속여자고등학교 1명(최현수 학생) 총 7명에 대해 국제평화봉사단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장학금 수여는 수업 중인 시간을 고려해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 직접 전달됐다.